



모리스 포프의 《문자해독이야기》와 앤드류 로빈슨의 《글쓰기이야기》

신비하고 기묘한 언어의 본성

언어와 문자의 흥미진진한 세계 다룬 책들

해독해야 할 부호라는 점에서 언어는 상황에 따라 늘 새롭게 해석된다. 사실을 명백한 문장으로 남기기 위해 언어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고대언어를 해석하는 일은 여러 학자들의 집념 어린 추적이 뒤따랐다. 모리스 포프가 쓴 《문자해독이야기: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마야사본까지》(*The Story of Decipherment: From Egyptian Hieroglyphics to Maya Script*)는 이집트 상형문자, 페르시아 설형문자, 미케네 리니어 B, 케리어 사본, 마야 상형문자 등 대표적인 고대문자를 중심으로 그 해독법을 소개한 개정판이다. 문자해독학을 바탕으로 원본의 실제 모습과 그림의 예, 문자표 등을 제시해 문자해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흥미롭게 설명했다. 이 책에는 126개의 삽화와 방대한 전문용어가 수록돼 문자해독학의 전체적인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다.

완전한 언어, 그 이후

1755년 출간된 《영어사전》(*The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에 실린 사무엘 존슨의 서문에서 제목을 딴 조너선 그린의 《태양을 쫓아: 사전편찬자들과 그들의 사전》(*Chasing the Sun: Dictionary-Makers and the Dictionaries They Made*)는 바빌로니아 시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전편찬의 역사를 다룬 책이다. 방대한 분량이지만, 저자 자신이 사전편찬자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독자들이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게 전문지식을 풀어썼다.

우리에겐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유

명한 움베르토 에코의 《뜻밖의 황제: 언어와 바보짓》(*Serendipities: Language and Lunacy*)과 《완전한 언어를 찾아서》(*The Search for the Perfect Language*)는 에코 특유의 상상력·유머·교양·박학다식을 갖춘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다. 《뜻밖의 황제》는 언어와 지식의 역사를 쫓아가며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다섯편의 강의를 엮은 책이다. 이 강의의 주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거짓말과 실수. 대표적으로 동양에 기독교도들이 현존한다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완벽하게 엮은 12세기의 문헌은 이후 5백년 동안이나 동양을 향한 열정을 만들어내 콜롬부스로 하여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했다. 이

책에서 에코는 바벨탑 이전의 범주주적인 언어에 대한 탐구로 귀결되곤 하는데, 《완전한 언어를 찾아서》는 바로 그런 노력을 담은 책이다.



18세기, 일본 에도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책장수들은 문자의 유포에 큰 기여를 했다.

바벨탑이 무너지기 이전에는 서로 완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했다는 가정만큼 흥미진진한 일은 없다. 《완전한 언어를 찾아서》에서 에코는 아우구스티누스·단테·데카르트·루소 등의 문헌은 물론 카니발리즘과 마술에 관한 초기 기록들을 뒤지며 언어사의 한 귀퉁이를 부지런히 탐색한다.

글쓰기와 문자의 세계

흥미진진하기로는 앤드류 로빈슨의 《글쓰기 이야기: 알파벳, 상형문자, 그림문자》(*The Story of Writing: Alphabets, Hieroglyphs and Pictogram*)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인간은 어떻게 글쓰는 방법을 배우게 됐으며 고대문자를 현대인이 해석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등 재미있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설형문자·상형문자·한자·일본어는 물론 각기 형태가 다른 알파벳인 그리스어·로마어·히브리어 등의 발음체계와 상징체계의 연관관계를 살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 J 오도넬의 《세계의 화신: 파피루스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Avatars of the World: From Papyrus to Cyberspace*)는 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췄다. 현대세계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문자를 담는 매체의 물리적 변화가 문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루며 의사소통에 대한 통찰력을 던져준다.

— 김연수 기자